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중공업(주)

이번 탐방은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시작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한 현실로 만드는 불굴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우뚝 세우는 데 앞장서온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였다.





세계적인 종합 중공업회사로 성장

현대중공업은 조선, 엔진기계, 해양, 플랜트,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등 6개의 사업본부와 1개의 기술개발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최초로 연간 102척의 선박을 인도한 바 있는 조선사업부는 현대중공업의 핵심 사업부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엔진시장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엔진기계사업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 하역설비공사를 기점으로 성장해온 해양사업본부는 생산설비, 시추설비 등 다양한 해양관련 설비를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중화학공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플랜트사업 부문은 국내외에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기전자시스템과 건설장비 사업부문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종합 중공업회사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도 실현 가능한 일로 만들어

지난 1972년 3월, 황무지나 다름없던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으로 출발한 현대중공업은 많은 일화를 갖고 있다. 2년 3개월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조선소를 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 부지만 마련된 상태에서 당시 정주영 사장이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권 지폐로 대한민국이 수백 년 전 전함을 제작한 경험이 있음을 설득하여, 그리스 LIVANO사로부터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의 수주한 사례는 거칠 것 없는 도전정신의 본보기로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해온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세계 최대 화물선 건조, 세계 최대 엔진 생산, 세계 최대 원유시추선 육상 제작, 세계 최대 육상 리프팅, 세계 최초 선박 육상 건조, 세계 최대 LNG선 건조 등의 기록들은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과감히 도전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현대정신의 결과물이다.

노사화합으로 15년째 무분규 이뤘

현대중공업은 15년째 무분규를 이뤄내고 있다. 특히, 올해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한 사항 일체를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는 고용안정 협약체결과 우리사주 배정으로 화답하는 등 임금교섭을 무교섭으로 마무리하여 한 단계 성숙한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노사 간의 신뢰는 지역주민과 사원 가족에 대한 회사의 다양한 배려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사원주택 보급률은 95%로 이는 회사의 1만 6천 세대 주택 공급에 기인한다. 독신자들을 위해 1천 677실의 현대식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7개의 중·고교 및 대학 운영과, 사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최첨단 대학 병원 운영 등 지역주민과 사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사공동의 장기기증운동에 6,200명의 사원이 참가하는 등 이웃을 위한 생명나눔운동의 실천을 통해 노사화합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총무부 허호 부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최첨단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안전시스템인 U-Safety System 도입이 한창이다. 건조 및 진수 호선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화재뿐 아니라 CO 등 유해가스농도가 규정치 이상이 되었을 경우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뿐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에 의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자체소방대가 보유한 장비 또한 웬만한 소방서를 능가한다. 최신 소방차 4대를 비롯, 앰블런스 3대, 공기호흡기 50세트와 각종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만 해도 산불진화에 총 16회, 소방훈련 응원출동 4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평소 소방훈련도 남다르다. 2주에 1회 실시하는 소방대 자체훈련 외에도, 선박 척당 건조 시 1회, 진수 시 1회의 소방훈련을 선주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연간 100척의 선박이 인도되는 것을 감안하면 200회가 넘는 훈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위험관리에 대해

총무부 허호 부장은 사업장 위험관리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협회의 보험컨설팅이 자사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입사 이래 소방업무 경력만 26년이라는 강일중 기원은 “평소 협회의 안전 점검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자체 소방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료 등의 보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의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현 가능한 일로 바꾸어나가는 현대중공업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